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공사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1년 08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농업 혁신 현장을 가다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1호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송탄마을회관을 서욱진 이장(가운데)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말 준공된 이 건물은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건축물’로 인정받았다.

공공시설 개선 ... 편의성·환경 살려

③ · 끝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장수군 춘송리 송탄마을회관
국비·지방비 받아 리모델링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어듦
냉방·방풍 등 실내조건 향상**

8월25일 오후 3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에 있는 송탄마을회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층짜리 아담한 규모의 마을회관이다. 하지만 99㎡(30평) 남짓한 실내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여느 마을회관하고는 사뭇 달랐다. 쾌적하면서도 뽕뽕송송하다고 해야 할까? 며칠째 이어진 가을장마로 덥고 짙은 바깥 날씨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손님이 온다고 틀어놓은 실내 에어컨의 온도는 25℃에 맞춰져 있었다. 에어컨 근처에선 서늘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마을 이장 서욱진씨(63)는 “같은 자리에 있던 오래된 마을회관을 헐고 9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 연말 새로 문을 연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환경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송탄마을은 113가구 220여명이 사는 전형적인 시골이다. 최근 4년간 어린이가 한명도 태어나지 않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하다. 한남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무진장지사 대리는 “대부분의 농촌처럼 이곳 어르신들도 농번기엔 어떤 식으로든 거의 다 농업활동을 하신다”면서 “농한기에 접어드는 11월부터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하는데 건물벽이 낡아 벌어진 틈으로 한기가 들어와 매우 추웠다”고 말했다.

부모 같은 분들을 고생시켜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서씨는 면사무소 직원과 머리를 맞대던 중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농

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경로당 같은 농촌 공공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처음 도입됐다. 전체 사업비 3억1000만원 중 국비와 지방비 지원율이 각각 50%와 30%로 꽤 높은 것도 열악한 농촌마을 입장에서선 안성맞춤 조건이었다.

송탄마을은 사업대상 공모에 도전장을 냈고, 심사를 거쳐 전국 2곳의 대상지구 중 한곳으로 선정됐다. 이후 과정은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도맡았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지난해 3~12월 동안 외벽 단열, 3중 창호, 열회수형 환기, 고기밀 시공 등 ‘패시브 건축’에 나섰다. 지붕에 태양광패널도 설치해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 결과는 놀라웠다. 겨울 한철 난방을 하려면 종전엔 1㎡당 등유 22.7ℓ가 들었지만 리모델링 후엔 2.9ℓ로 확 줄었다. 에너지 자립률은 5%에서 57%로 크게 높아졌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당 174kg에서 20kg으로 뚝 떨어졌다.

서씨는 “지금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폐장을 반복하지만 농촌에서 마을회관은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제2의 집이나 다름없다”면서 “농촌주민 건강도 지키고 지구환경도 살리는 이같은 에너지 자립형 농촌 공공생활시설이 더 많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도 충남 홍성 신촌마을회관과 전남 영암 신기마을회관 등 2곳을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곳은 지난해 10월 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뽑혔다. 심재범 농어촌공사 차장은 “전국에서 6곳의 농촌마을이 응모했지만 2곳만 통과했고, 내년엔 6곳 규모로 사업을 키워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예산안엔 2곳 규모로만 편성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수=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판로 확대 위한 라이브커머스 교육 열어

신규 유통 채널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우진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온라인 판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1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의 주류로 자리잡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실습을 통한 인증 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된 본 교육은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32팀이 참석했다.

본 교육은 라이브 커머스의 이해와 현황을 포함하여 방송 장비와 방송 기획 및 실습까지 포함되었다. 원데이 수업만으로 직접 방송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매우만족(87.6%)에 달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해당 교육을 허지연 강사와 김성현 강사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허지연 강사는 아나운서, 사회자, 모바일쇼호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안동대학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라이브커머스 교육,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 라이브커머스 심화교육, aT농식품마케팅대학 라이브커머스교육, 성남산업진흥원 라이브커머스교육, 온채널 라이브커머스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김성현 강사는 귀티나 주얼리를 운영함과 동시에 라이브커머스 어플리케이션 그림에서 팔로워 3000 이상을 가진 그리퍼로도 활동중이다.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 라이브커머스 심화교육, 김해 창업센터에서 오픈마켓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 라이브커머스 및 스마트스토어 1:1 교육, 일산 킨텍스 메가쇼 현장방송 기획 및 진행, 부산 창업카페 온라인 비즈니스 특강, 김해 여성 센터 특강을 진행했다.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금평제 녹조예방 방제활동 강화

[김제=조원영 기자]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녹조 예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발벗고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심재학)는 금산면 소재 금평저수지에서 계속되는 폭염과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녹조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금평저수지 녹조 방제 작업은 직원 10여 명이 보트를 이용해 녹조 제거제 1,000kg을 저수지 수면 전체에 살포했다.

이와 함께, 동진지사 관내 20여 개의 저수지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녹조 발생 예방 작업 등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재학 동진지사는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녹조 발생 시 즉시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제=조원영 기자



충남 서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송림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교육으로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실시했다. <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제공>

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송림항 어촌뉴딜 전문가 육성 교육

바리스타 교육생 6명 자격증 취득

충남 서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송림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교육으로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낙후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 대상으로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관광 등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 사업안에는 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주민역량강

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육성 교육도 포함돼 있다.

이번 바리스타 양성과정에서는 송림항어촌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생 6명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이들은 송림항 어촌뉴딜300사업에 구축되는 '송림갯골어울림센터'의 마을기업 카페에서 바리스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윤선 서천지사는 "송림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세명일보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005면 사회

농어공 구미·김천지사, 무을저수지 녹조방제 조치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일 구미시 무을면에 위치한 무을저수지 녹조제거제를 살포했다. 무을저수지 일대와 수해구역은 무농약 친환경쌀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깨끗한 무을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매월 2회 녹조예찰과 분기별 수질검사, 상류 오염원 점검 등을 통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하절기 고수온으로 인한 저수지 유입부에 녹조가 발생해 지난 20일 무을저수지에 녹조제거제 1,500kg을 물에 희석해 긴급 살포했다.

특히 이번 방제작업에서 ESG경영(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실현을 위해 친환경 녹조제거제를 활용했다.

이번 녹조제거제 살포는 금년도 잦은 강우로 인해 유기물질 유입증가, 기온상승, 일조량 증가로 저수지내 녹조의 확산이 우려돼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무을저수지 내 친환경 녹조제거제 살포 모습 <농어공 제공>

권택한 지사장은 "기상상황과 녹조발생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청정주곡 생산 지원을 위한 수질관리와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역기자

경남연합일보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011면 사람



농어촌공 진주산청지사, 집수리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김영욱)는 지난 27일 진주시 명석면 외율마을에 위치한 가구를 방문해 농촌 집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선정했으며, 방치돼 있던 빈집을 보수해 깨끗한 주거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이민재기자

경안일보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004면 사회 국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무을저수지 '친환경 녹조제거제' 활용

저수지 유입부에 '1천500kg' 희석 후 긴급 살포... 녹조 제거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일 구미시 무을면에 위치한 무을저수지에 녹조제거제를 살포했다.

무을저수지 일대와 수해구역은 무농약 친환경쌀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깨끗한 무을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매월 2회 녹조예찰과 분기별 수질검사, 상류 오염원 점검 등을 통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하절기 고수온으로 인한 저수지 유입부에 녹조가 발생해 녹조제거제 1천500kg을 물에 희석해 긴급 살포했다.

특히 이번 방제작업에서 ESG경영(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실현을 위해 친환경 녹조제거제를 활용했다.

권택한 지사장은 "기상상황과 녹조



발생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청정주곡 생산 지원을 위한 수질관리와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호 기자 ga7799@gailbo.com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충청 <20>동양 최대 논산 탐정호 출렁다리



동양에서 최대 길이의 출렁다리가 논산시 탐정호에 세워졌다. 논산시는 논산의 랜드마크 탐정호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18년부터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 600m의 길이의 출렁다리를 만들어 지난달 28일 임시 개통했다.

가야곡면에서 부적면에 걸쳐 탐정호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의 길이는 600m(폭 2.2m)로 예당호 출렁다리보다 200m가량이 길다. 몸무게 75kg 기준 5076명이 동시에 함께 할 수 있고 초속 60m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수변 생태공원, 딸기향 테마공원, 박범신 집필관 등 탐정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44년 준공된 탐정호는 유역면적 2만 1880ha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다.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는 인공호수로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진가 우희철>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인구 느는데 남부만 있는 '통합본부' 공공기관 '북부본부 설치론' 떠올라

캠코·에너지공단 등 도내 1곳뿐
남양주·파주 등 '순유입' 상위권
민원·행정수요 증가 대비 목소리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분도론'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이번엔 경기 남부에만 통합지역본부를 둔 준정부기관·공기업 등의 '경기 북부지역본부' 설치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분도론은 선거철 단골 공약이지만 최근 빨라지는 경기도 인구 증가세(7월26일자 12면 보도) 만큼 늘어나는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사업, 원거리 현장 지원업무 등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다수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은 수원 등 경기남부의단 1곳 통합지역본부만으로 경기도 전체 수요를 감당한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서 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 규모가 커지며 북부지역에 대한 행정·민원 등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경기도 인구 이동'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2010~2015년 대비 2016~2020년의 경기도 순유입 규모가 1.9배(38만5천명→72만3천명)로 증가했다. 이 중 경기 북부인 의정부(-5천명→2만6천명), 양주(4천명→2만4천명)는 증가 폭이 커졌고 해당 10년간 남양주(12만6천명)와 파주(9만3천명), 고양(9만9천명) 등은 증가 규모가 상위권에 올랐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늦기 전에 북부지역본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업무 비중이 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전국 업무량 약 30%가 경기도에 몰려 1천명에 달하는 직원과 29개 지사를 수원의 통합(경기)지역본부 1곳에서 전부 책임진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기 분도가 현실화하면 사업 추진 특성상 경기북도청에 인접한 북부지역본부가 필수적인 걸로 알려졌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경기 북부 인구와 사업수요가 늘어나 지역본부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다"며 "신도시와 교통 인프라도 북부에 증가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사천교육지원청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비전 제시

시·상공회의소·기업 고졸 채용 확대 협약 체결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법곤)은 지난 27일 직업계고 고졸 지역인재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천시 관계

자를 비롯해 사천상공회의소,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등 지역 대표기업 인사담당자와 사천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교장 등이 참석해 사천 지역 직업계고 고졸 지역인재들이 사천시와 사천지역 대표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주), 대동기어(주), 송월테크놀로지(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등 지역 대표기업 인사담당자와 사천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교장 등이 참석해 사천 지역 직업계고 고졸 지역인재들이 사천시와 사천지역 대표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협약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사천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협약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산·관·학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법곤 교육장은 "사천 지역 공공기관과 대표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천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채용함으로써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지역 사랑과 진로 희망을 꿈꾸는데 좋은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도 기업과 학교 간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권기자

홍양저수지 원인 모를 물고기 떼죽음



홍양저수지에 지난 18일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가 떠다니고 있다.

사진=제보자

주민 “100마리 이상 죽어…원인 밝혀야”

농어촌공사 “현장 방문해 문제점 파악”

홍양저수지에 물고기들이 원인 모를 떼죽음을 당해 농어촌공사홍성지사가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휴가철을 맞아 고향인 홍성을 방문했다는 주민은 지난 18일 홍양저수지로 낚시를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주민은 “100여 마리 이상으로 보이는 물고기가 죽어 있었다. 죽은 물고기를 새가 먹고 문제가 생긴 않을까 걱정이 된다. 생태계 문제는 가

장 중요한 문제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이하 공사)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산란기가 끝나거나 갑작스럽게 기후 변화가 생기면 물고기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 우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사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최근 비가 많이 내려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중으로 물고기 수거를 진행해 폐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금마 어업계에도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혜지 기자 /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으로 적극 '지원'

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농지매입사업 농가들 호평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남윤선)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지역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지원받은 농민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단순히 부채만 청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매입액의 1%이내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임대해주고 있으며 임대기간중 언제든지 해당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농가에게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환매시엔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에 연3% 가산금액중 '낮은금액'으로 농지환매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원농가에 유리한 '착한사업'으로 농가의 호응이 꾸준하다.

실제로 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지난 2006년 사업시행 이후 서천지역에서는 106농가에서 300억원을 지원받아 혜택을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남윤선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은 "경영회생사업을 몰라서 빚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 영양군 역량강화사업 착수 보고회

[고명혁]

“할매, 할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 2021년 영양군 역량강화사업 착수 보고회

8월26일 문바우마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양군, 지역문화관광과 협력 하여 역량강화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졌으며 고령화된 농촌 영양군 마을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 하고 있다.

권역, 휴양마을, 지역주민 대표, 사무장등 참여, 기존 사업에서 벗어난 주민주도형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마을문화 환경 개선과 정이 넘치는 마을 조성, 맞춤형 역량강화, 사후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등 현실에 맞는 역량강화사업에 적극적 동참을 약속 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의 성과에 큰기대를 해본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강, 죽음의 녹색

[기자]

[포토스퀘어]마이크로시스틴 허용량의 70~100배 넘는 군산 선착장·부여 수상스키장·익산 용두양수장



2021년 8월17일 전북 군산시 나포면 논둑에서 금강 양수장을 통해 끌어온 물이 녹조가 짙게 낀 채 논으로 흘러들고 있다.

2021년에도 금강이 녹조로 짙게 물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벌이며 금강에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를 만들었다. 보가 강물의 흐름을 막아 해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녹조가 발생했다. 강바닥에도 두껍게 진흙이 쌓여 강이 제 기능을 못했다. 2018년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자, 수문이 닫힌 백제보와 금강하굿둑에만 녹조가 발생했다. 2021년 5월 백제보 수문까지 전면 개방하자 강바닥을 뒤덮은 퇴적토가 흘러내리다 하굿둑에 막혀 하구 주변이 녹조로 뒤덮였다. 8월20일 기준으로 충남 논산시 강경을 황산대교부터 하구까지 30km 정도가 '녹조밭'으로 불릴 지경이었다.

하굿둑에 갇힌 녹조는 단순한 녹조가 아니다. 남조류라고 부르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가 대대적으로 번식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녹조에 노출되면 위장염과 간질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같은 여러 급성·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녹조가 발생한 연못의 물을 마시고 가축이 폐사한 사례도 있다. 중국에서는 녹조 물로 농사지은 벼 알곡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독소가 발견되기도 했다. 남세균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100배 강한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시민들은 금강에서 수상스키를 즐기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수장을 통해 시퍼런 강물을 공급한다. 일부 농민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녹조는 비료 성분이 있어서 농업에 도움이 된다"고도 한다.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려고 2021년 8월12일 충남 부여 내성리 수상스키장, 충남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전북 익산 용두양수장, 전북 군산 나포면 선착장과 서포양수장 등 금강 5곳에서 강물을 채수했다. 그리고 이 물을 부경대 이승준 교수(식품영양학과)에게 의뢰해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군산 쪽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선착장은 2362.43ppb(1ppb=10억분의 1), 부여군 수상스키장은 1532.10ppb,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두양수장은 1509.17ppb의 리터당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을 한 번에 분석해 수치화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기준으로 음용수는 1.6ppb, 레저 활동은 20ppb를 허용치로 정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신체 접촉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강물을 끌어다 농사짓는 것이다. 도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재배한 농산물을 식탁에 올리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북 군산 서포양수장 아래쪽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해, 군산 공업지대로 공급한다. 농업용수는 별 처리 없이 공급하면서 농업용수는 정수해 공급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전북 익산시와 충남 부여군을 연결하는 웅포대교 아래 강물에서 7월28일 시민들이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다. 이곳의 녹조는 4대강 사업 뒤 최악이지만, 개인사업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녹조가 심할 때는 배로 휘젓고 운영한다.



충남 서천군 화양리 연꽃단지에서 8월17일 배나무 가지가 휘어 녹조로 물든 강물에 들락거리고 있다.



금강의 네 번째 보로 불리는 하굿둑은 배수갑문이 군산 쪽(아래)에만 있어, 서천 쪽은 퇴적토가 쌓인 채 제 기능을 못한다. 8월9일 녹조가 짙게 발생했다.



8월6일 금강 하구 군산 쪽 서포양수장 강물에 발을 담갔다 빼니 초록 양말을 신은 듯하다. 서포양수장 물은 농업용수로 공급된다.

군산·부여·서천=사진·글 김종술 금강지킴이

세종시 '농지법 위반 실태' 전수조사, 범위·대상 주목

[이희택]

지난 5월 4개면 우선 발표 이어 11월까지 읍면 전역 조사

윤 의원 부친 농지 포함, 민주당 일부 시의원 '농지 조사' 물음표



윤희숙 의원 부친이 매입한 전의면 농지 전경.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윤 의원의 직무 연관성 여부가 의혹 해소의 키로 부각되고 있다.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법 위반 실태' 전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개발 호재가 있는 연기·연서·금남·전의면 816필지 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10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 조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서 촉발됐다면, 이번에는 매년 진행되는 정기 조사 일환이다.

외형은 정기 조사이나 세종시 담당 부서의 중압감은 남다르다.

무엇보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 투기 의혹' 농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발표에선 농지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지난 6월 전·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 계약 종료 직후 현 시점까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 범위 자체도 일단 넓다.

최근 10년 이내 타 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1만 8463건(2592ha)을 살펴봐야 한다.

내지인 소유 농지가 빠졌으나, 세종시 총괄 부서인 '농업정책과 담당 2명과 일부 조사요원'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다가온다.

실제 담당 부서는 올 들어 투기 이슈 격량에 격무를 반복하고 있다. 밀도와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란 현실적 한계 지점도 엿보인다.



민주당 이윤희 세종시의원이 당선 전인 2017년 5월 취득한 연서면 신대리 농지의 지난 3월 모습. 묘목 등이 몇 그루 심어져 있으나 제대로 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부지에는 차량출입과 경작금지 팻말이 설치돼있다. 자료 사진.

또 야권 일각에선 민주당 일부 세종시의원 조사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경찰청이 수사 대상에 올린 이들을 제외한 시의원들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는 지난 3월 정부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로 확인된 바 있고, 해당 시의원들은 지역 언론을 통해 “가족들과 ‘주말 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 초부터 전 국민적 이슈로 부각된 투기 의혹에다 관계 기관 요구로 ‘농지 조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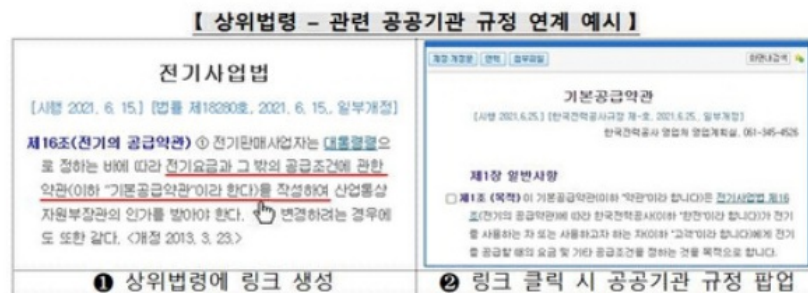
한편,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를 보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 임대 또는 무상사용을 허용한 경우 ▲징병과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도니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등에 한해 농지 임대 또는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에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필요,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수용자, 3월 이상 해외 여행, 청산 중인 농업법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등으로 담겨 있다.

67개 공공기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서 한눈에 본다

[조민정]

시범운영 거쳐 내달말 공공기관 350개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2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이들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개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된 법령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정보의 하나인 공공기관 규정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찾으려면 이전에는 각각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단히 할인 기준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9월 26일까지 한달간 시범운영한 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부터는 정보제공 대상을 공공기관 350개 2천여개 규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끝)

추석 3주 전부터 '성수품' 푼다... 소고기 공급 작년의 1.6배

[박세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10억 투입... 할인 한도 2만 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연휴 3주 전인 이달 30일부터 추석 성수품 공급에 나선다. 사과나 배, 소고기 등 성수품 물량을 평년보다 대폭 늘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추석 성수기 기간에 집중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기 공급계획'을 밝혔다.

우선 추석 때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 16종의 하루 평균 공급 물량을 지난해의 1.3배, 평년의 1.4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과 △배 △배추 △무 등 농산물은 평년의 2.4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추와 무는 지난해의 3배 이상, 사과와 배는 각각 2배, 1.3배를 비축해 놓았다.

돼지고기는 하루 평균 공급 물량을 지난해의 1.25배 수준으로 늘려, 추석 성수기 동안 총 6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고기 공급 물량도 1.6배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축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소고기 수입은 10%, 돼지고기 수입은 5% 늘리기로 했다. 계란도 9월 중 1억 개를 추가로 수입해 공급을 지속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970억 원 중 510억 원을 추석 성수기 기간에 집중 투입한다. 이 기간에는 사용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 △수산물 할인행사도 펼친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국민 대상 지원금도 집행되고 있다. 저소득가구 29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24일까지 266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30만 명도 계좌정보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4,000명 중 123만7,000명에게 총 2조 9,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불균등한 회복에 대응해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고 피해부문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뉴딜, 일상에서 건강·소통·신뢰 지킨다

[서영준]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원더풀플랫폼 등 3개 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원더풀플랫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세림티에스지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1)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7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관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임 장관,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황성택 원더풀플랫폼 부사장, 이병철 세림티에스지 대표, 김현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8.27/뉴스1 /사진=뉴스1 화상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원더풀플랫폼이 개발한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 다숨이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가족과 잘 소통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자다. 자식과 보호자는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영상통화와 음성메시지로 안부도 주고받는다. 특히 말벗 기능은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돌봄서비스가 어렵고, 생활관리사 부족으로 양질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힘들어지는 때에 다숨이는 예측 불가능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성맞춤 해결책이다. 전국 28개 지자체·보건소와 함께 어르신 2600여명에게 다숨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심리·활동 상태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보건소 담당자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돌봄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리라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20년 지능형(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의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에 선정돼 감염병 대응에 맞는 적합한 지능형병원 선도모델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코로나19 환자 분류 연산방식을 개발했다.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일일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와 추가 검사,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을 따져 조치했으나 이제는 고도로 학습된 AI가 확진자의 병원 기록·감염경로·나이·체온·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증도와 사망 위험을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과 치료 시설을 제안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AI가 입소자의 여러 생체징후와 기초 역학 자료, 다양한 검사 소견을 결합해 증상 변화를 원격으로 관찰하고 반지형으로 손가락에 끼우는 의료기기로 입소자의 혈압이나 심박동수 등 생체징후를 실시간 감지한다.

일산병원은 공공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과 동선 위치 추적 기반의 원내 감염 확산방지 체계도 구축하고 근무 환경, 업무 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의료진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세림티에스지는 임직원 350여명 중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시스템 전문 기술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기술 중심 회사다.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 정보는 물론 각종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뵘과 민원을 상담해 주는 구뵘 챗봇까지 내 손안의 비서를 탄생시켰다. 국민비서서비스가 주목받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채널로, 손쉽게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판뉴딜의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동력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재생·스마트농업 힘 실을 것”

| 인터뷰 | 윤 원 습 정책기획관
농식품 국정과제 성과창출 운힘

“농촌재생,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포용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겠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사진>은 2022년 예산 심의·편성에서의 농정 분야 대원칙을 이같이 밝혔다.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 촉진과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의 포용성 강화에 집중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행정, 규제혁신 등을 통해 정부의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국민 접점 현장서비스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게 윤 정책기획관의 의지다.

-정책기획관(국)의 주요 업무는.

“정책기획관(국)은 기획재정, 혁신행정, 규제개혁, 정보통계 등 4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은 업무보고 및 대내외 회의 대응, 국회 대응, 예산 편성, 결산 대응 등이고, 혁신행정은 조직 및 정원관리, 혁신관리 및 적극행정 지원, 정책 및 재정사업 제도 운영·평가 등을 통해 농식품부의 행정 효율성 및 업무역량 제고 업무이다. 농식품부 분야 규제개혁 추진 및 정부 입법개혁을 수립·추진하는 규제개혁 부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농식품 통계 체계 구축 및 생산·수집·분석 및 제공 등 정보통계도 있다.”

-2022년 농식품 분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2022년 농식품부 예산 편성은 농촌재생,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포용성 강화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



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새로운 탄소배출 저감 모델 실증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

응, 고령화와 노동집약적 구조 보완, 소비자에게 안전·균일한 품질 보장 등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예산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동물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분야에 대한 복지 제고 등도 중요하다.”

-그동안 혁신·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우수(A) 등급 달성했을 정도다. 국정과제-중점관리과제-부서별 관리과제를 연계해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달성을 독려했으며,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통합성과평가(부서평가)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했다. 지난 3년간 전 부처 3000여 개 과제 중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될 정도로 기관의 정책목표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새롭게 부각된 ‘MZ세대와 함께하는 조직문화개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안 기조에 맞춰 ‘혁신제도, 신산업, 국민불편·부담’의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발굴·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국민체감도 제고 및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발굴·정비를 위해 규제혁신 포럼을 9~10월 중 개최하고,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발굴과제에 대한 개선·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세종=조상은 기자

농정 살림 챙기고, 신산업 발목잡는 규제 없앤다

<부처탐방> 농식품부 정책기획관(국)

탄소중립·식량안보 필요성 강조
매년 농업분야 예산 증가 '결실'
혁신행정 등 힘써 제감성과 창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국)은 예산 등 농정분야의 살림뿐만 아니라 혁신행정, 규제개혁 등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 중 하나다. 정책기획관(국)의 업무는 기획재정, 혁신행정, 규제개혁, 정보통계 등 4개 분야로, 기획재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과)에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예산과 결산 시즌이 도래하면 정책기획관(국)의 중요도는 한층 더 높아진다. 예산 편성 과정 중 최일선에서 국회 대응하는 정책기획관(국)의 노력 결과에 따라 한 해 농업 분야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심사 시즌이면 정책기획관(국)의 직원들은 국회에 살다시피 할 정도다. 이 같은 노력은 매년 농업분야 예산이 증가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농식품부 예산은 16조2856억원으로 2020년(15조7743억원) 대비 3.2%(5133억원) 늘었다.

2022년 예산 편성 정국이 막을 올리면서 정책기획관(국)도 역시 바빠지고 있다.

29일 윤원섭 정책기획관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도 증가, 기후 변화 심화, 식량위기 대응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내년 농식품부 예산 편성은 농촌재생,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포용성 강화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행정과 규제개혁도 정책기획관(국) 업무의 양축이다. 우선 혁신행정담당관(과)은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국) 과별 주요 업무

기획재정담당관 박선우 과장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국회심의 대응 ▶국회(정당) 및 국정감사 업무
혁신행정담당관 백운환 과장	▶중·장기 정부혁신 및 부내혁신 기획·혁신과제 발굴·기획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운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나영 과장	▶농식품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국회입법 추진·국회법안 심사 지원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이원석 과장	▶농식품 정보화 계획 수립·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영 ▶농식품 통계 및 빅데이터 연계·활용 및 농식품 통계 지원 및 수집·분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공직자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으로 적극행정 일상화 △국민 참여와 소통으로 농식품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엄정 처벌을 통한 소극행정 행위 근절 등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백운환 혁신행정담당관(과장)은 "올해 4월부터 농식품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통자율 추진 과제(29개) 및 지속 추진과제(6개)를 발굴·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관(국)은 통합성과평가와 연계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공직 혁신을 바탕으로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농가경영 부담해소, 규제혁신 성과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 위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

해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켜 혁신 분야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식품산업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의 혁신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민불편 부담 해소 등을 위한 수요자·현장 중심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기업과 소통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박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밀착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행정, 규제개혁 등 정책 추진으로 농식품부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우수(A) 등급을 달성했다. 정책기획관(국)의 정보통계정책담당관(과)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농식품 통계 체계 구축 및 생산·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세종=조상은 기자 cse@

갈수록 심각해지는 온난화 경고

김성우 칼럼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매일 10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이 쏟아진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8월초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신기록 발표가 있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ppm으로 200만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이다. 오는 2040년에는 폭염이 9배 더 자주 올 수 있다는 발표가 뒤따랐다.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올림픽 신기록 행진이 멈춘 다음날 이와 같은 환경 신기록을 담은 제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도 올랐고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도 약 5배 늘었으며, 해수면은 이미 20cm 상승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이상 고온의 주범은 인간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최악부터 최선까지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미래 환경을 전망했는데, 적극적 배출감축을 전제로 한가장 긍정적인 최선시나리오마저도 2040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전망했다. 감축 노력이나 기술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가정한 중간 시나리오는 21세기 말 기온이 2.7도로

상승하여 한계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인구, 경제수준, 산업구조, 에너지믹스 등 사회경제구조에 기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자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도 참여해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후 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정도 보다 속도가 더 문제다. 이번 보고서에는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2.4조톤으로 추산했다. 지난번 5차 보고서에서 계산한 2011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에 비해 8년 만에 20% 증가한 양이다. 쉽게 말해 누적배출량 100% 중 160년간 80% 배출한 후 최근 10년간 20%를 배출한 것이다. 통상 배출 후 이로 인해 지구가 가열되는데 약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당분간은 과거 배출로 인한 추가 온도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세계 195개국 정부가 회원인 IPCC의 보고서는 과학적 연구로의 의미와 더불어 정부 간 협상의 근거도 되고 소송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과거 1~5차 보고서들이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약 등 주요한 국제사회 합의에 영향을 미쳐왔고, 오는 11월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6차 보고서가 기초가 될 것은 자명하다.

소송의 경우, 1986~2020년사이 제기된 1727건의 기후 소송 중 절반 이상이 파리협약(2015) 이후에 제기됐다. 정부를 상대로는 환경

규제 및 기후정책 강화 등을 요구하고, 기업(주로 화석연료기업)을 상대로는 기후변화 관련 대응 목표강화, 기후피해보상, 허위공시배상, 석탄발전폐쇄 등 쟁점이 다양하다. 지난 5월26일 글로벌 석유회사에 대한 탄소감축 목표상향 관련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에서 지난 IPCC 보고서가 활용되었고, 향후 항소심에서는 검찰측이 이번 보고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학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난 30년간 지구의 건강검진표다. 7월 말 발표된 세계 과학자의 기후위기 경고에 의하면, 산림감소, 해수면증가, 빙하면적, 이상기온변화 등 대부분 항목이 최소 두 배 이상 나빠졌다. 이산화탄소 및 메탄 등 주요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는 매년 신기록을 갱신 중이다. 증상은 심각하다. 미서부는 역대 최고치인 54.4도를 기록하며 고온건조한 기후로 인한 산불이 서울의 5배를 재로 만들었고, 캐나다에선 폭염으로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모스크바는 6월 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 아프리카와 뉴질랜드도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지구환경의 신기록 행진이다. 건강검진표나 증상은 위암을 진단하고 있는데, 환자는 위염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작년 초 코로나가 시작됐을 당시 일부 물품의 부족이 얼마나 삶을 불편하게 하는지 경험했다. 화장지 부족과 마스크 대란이 그랬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가 아닌 기후변화가 더 심해진다면, 이는 화장지나 마스크 대신 식량과 물의 문제일 수 있다. 백신도 없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의 경고가 엄중한 이유다.

탄소가 무슨 죄라고



뉴노멀 미래

박노밀
콘텐츠기획팀 선임기자

기후위기 세상에 탄소가 손가락질 대상이 돼 버렸다. 탄소 문명으로 이만큼의 번영을 이룬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인간의 잘못으로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실 탄소는 우리에게 문명을 넘어 존재의 기반이다. 세상은 탄소를 함유한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로 나뉜다. 다른 원소와 잘 결합하는 성질 덕분에 탄소는 지구 시스템 형성의 중심이 됐다. 생명체의 핵심 물질이자 설계자이기도 하다. 인간의 피부와 장기는 탄소를 중심으로 한 구조물이다. 생명의 설계도 디엔에이(DNA)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한 탄소 띠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다.

탄소 문명은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자연 순환 사이클 내에서 작동하던 탄소 문명은 석탄, 석유 산업의 등장으로 일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여년 만에 자신을 집어삼킬 화마를 만들고 말았다.

탄소 문제의 핵심은 자원 약탈이다. 재생 에너지의 강점은 여기서 가장 자유로운 대

안이라는 데 있다. 원전도 탄소를 연료로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지구를 파헤쳐야 한다. 게다가 방사능 공포를 안고 있다. 핵 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원전을 옹호하기 전에 이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원전 유혹의 본질은 욕망의 질주다.

나무 심기는 탄소를 흡수하니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배출한 뒤 제거하는 건 배출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지나친 녹색 정책은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위협한다. 세계 조림지의 상당수는 한두종의 나무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수종이 있는 산림은 단일 종의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나무 심기 유혹의 본질은 나무를 생명체가 아닌 탄소 흡수원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대기에 입자를 뿌려 햇빛을 반사하는 태양 지구공학도 거론된다. 하지만 비상대책 이상이 되기 어렵다. 물 순환 사이클을 교란해 다른 곳의 기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탄소 중립이 절실하다면 그만큼 탄소에 덜 의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중립' 대신 '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게 이치에 맞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짧은 기간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메탄 감축을 제안했다. 메탄은 수명이

10여년으로 짧은 대신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수십배다. 그래서 배출량이 적은데도 지구 온난화의 4분의 1을 책임진다. 메탄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축산업이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 위에서 나오는 트림이 메탄이다.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메탄을 온실가스 나무에서 가장 낮게 매달린 과일에 비유한다.

지난해 과학자들은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생활 실천 방법 10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효과가 높은 5가지가 자동차 없이 지내기, 전기차 타기, 항공여행 줄이기, 재생에너지 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였다. 결국 먹고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다.

하지만 탄소 배출 없는 삶이 그리 쉬운가? 혼자서 아닌 여럿이 시도하면 좀 수월해질 것이다. 한 실험에 따르면, 구성원 4명 중 1명이 새 관행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진 소수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채식을 선언하고 비행기와 결별하는 세계 유명인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국 지도층이나 엘리트 집단에서도 이런 이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선거 국면이니 바람 잡기에 좋은 시기다. 너 못났다고 헐뜯는 대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후보를 보고 싶다.

nohil@hani.co.kr

아주경제

AJU BUSINESS DAILY

전문가 기고

전세계 기후비상사태... 산림 생물다양성이 지구를 구한다

오늘날 지구의 기후는 변화의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기에 기후변화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기후위기를 더욱 강조해 기후비상사태, 기후실재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이미 많은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영국왕립사물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250년간 571종의 식물이 지구상에서 멸종했으며, 연구대상인 9만종의 식물 가운데 3분의1에 해당하는 식물들이 멸종위기 위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 한라산 고산지역에 서식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기후위기로 그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곤충도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에서 주로 서식하는 왕나비나 갈색여지 등이 최근에는 서울이나 설악산에서도 발견되고, 작년에는 충북 단양을 중심으로 매미나방이 대발생했으며, 서울에 대벌레가 대발생해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와 주류 재배지역은 1980~90년대만 해도 대구나 경북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강원도

평창, 영월 등으로 북상했다. 기후위기가 이대로 가속된다면 21세기 후반에는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 배, 포도 등은 강원도 등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재배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2020년에 발표된 '전 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에 전 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 대비 플러스(+) 1.9~5.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온상승뿐만 아니라 강수량 또한 5~10%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영국 스턴보고서에 의하면 기온이 약 3℃ 상승했을 때 전 세계 생물종의 20~50%가 멸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 세계 평균기온이 5.2도 상승이라는 최악의 경우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태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탄소중립 계획을 세워 발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과 발맞추어 2050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을 늘려서 넷 제로를 만드는 것이다. 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을 늘리고 보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산림, 습지, 초지, 해양 등 다양한 생태계가 중요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산림의 경우 육상생태계 탄소흡수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많은 연구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

19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장중심 조사를 넘어 지금이야말로 생태계에도 자동화된 실시간 감시체계가 필요한 때다. 과학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동화해 실시간으로 생태환경 분야를 감시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가 현장조사로 끝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이런 자료를 처리하고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요하며, 모델링 기술 개발을 통한 현재의 영향파악뿐만 아니라 미래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태계 분야에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투자야말로 생태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증진된 생물다양성이 우리가 담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상훈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팀장

지금의 해안가는 언제까지 지도에 남을까

[한겨레S] 이라영의 비평

한반도의 기후위기

기후 탓 폭우·산불 지구적 현상

‘떠오르는 바다’ 예언도 현실로



더 해리슨스의 작품 <바다는 정중하게 떠오를 거다. 나는 당신을 돕고 당신은 나를 도울 거다(예언)>. 부산현대미술관 온라인전시관 갈무리

18일 새벽 강릉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순식간에 강릉역이 침수되고 출근길은 난리가 났다. 그리고 '강릉 물난리로 현화로는 전면 통제되었다'는 뉴스를 접한다. 해안가 도로인 현화로에 물이 찔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다.

바다가 떠오른다

작년에는 대전, 부산, 구례 등에서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었다. 최근에만 벨기에와 독일 등 유럽에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독일에서는 무려 150여명이 사망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심각한 폭우가 발생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산불이 멈출 줄 모른다. 극단적으로 습하거나 극단적으로 건조하다.

<바다는 정중하게 떠오를 거다. 나는 당신을 돕고 당신은 나를 도울 거다(예언)>. 1960년대 생태예술운동에 참여한 작가 더 해리슨스의 1979년 작품 제목이다. 현재 부산현대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세계지도처럼 보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모양이 조금씩 변형되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그는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가 도시가 사라진 미래의 모습을 지도로 '예언'했다.

여기 또 다른 예언. 김기창의 2021년 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에는 "전세계 136개의 해안 도시가 범람했고, 40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사회가 등장한다. 예술가들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해수면은 세계 평균 연간 2mm씩 상승 중이다. 그렇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해안가에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난다.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 백년전쟁 당시 '칼레의 시민'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북부의 칼레처럼 강 하구와 연결된 일부 해안 도시는 실제로 2100년이면 지도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지구의 상승하는 온도를 멈추지 못한다면 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도 떠오른다. '한국 기후 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는 세계 평균의 두배가 넘는다.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도 세계 평균을 웃돈다. 한국의 평균 해수면은 해마다 2.97mm씩 높아졌다. 지난 30년간 거의 9cm 상승했다. 특히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남해와 서해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동해안은 해마다 평균 4.86mm 상승했다. 위기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다. 이미 우리가 그 위기 안에 있다. 기후위기는 정치위기에 의해 가속화된다.



유엔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보고서를 낸 지난 9일 미국 플로리다주 서니아일스 해안가 건물 앞에 거센 파도가 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헬로포토 다운받겠음

정부·정치권, 무지하거나 소극적

생존을 위해 '지구의 법' 따라야

기후문해력이 없는 권력

용기 내~ 용기! 브레이브걸스의 목소리로 공익광고가 울려 퍼진다. "지구를 위한 착한 용기"는 무엇인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 포장할 때 소비자들이 용기(容器)를 준비하는 용기(勇氣)를 내라는 캠페인이다. 음식 포장과 배달로 인한 쓰레기 증가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로 훨씬 심각해졌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분해될 때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 중에서 화석연료와 가축 사육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노력하긴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인적'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다. 또한 부동산 공급이라는 목적으로 재개발이 빈번하여 어마어마한 건설폐기물이 쏟아진다. 실제 생활쓰레기는 한국의 경우 전체 쓰레기의 12%도 되지 않는다. 약 85%가 산업폐기물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은 건설폐기물이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별짓을 다 해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개인의 용기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양가적 감정을 느끼는 이유다. 게다가 이 모든 노력들에 눈에 띄게 앞장서는 이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과연 우연일까. 청결과 절약, 돌봄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성역할이었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상의 실천에서도 은근히 여성의 책임이 커진다.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성들은 더 노력하면서 더 죄책감을 느낀다.

반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치인들이 가장 무관심하다. 예를 들어 '탄소중심'이 적힌 마스크를 천진하게 쓰고 다니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윤석열은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다. 왜냐하면 그가 배울 필요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당은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파국"이라는 발언도 했다.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어설프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입에 붙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후문해력이 없는 이들이 권력을 쥐고 그들에게 유리한 언어들을 만든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녹색 성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뉴딜'로 변했다. 녹색 혹은 그린은 개인들이 실천하고 성장과 뉴딜은 기업이 담당하여 이윤을 얻도록 한다. 비행기 안 타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건 말건 정치인들은 여전히 공항 건립을 유권자들에게 미끼로 던진다. 탄소배출만이 아니라, 무분별한 공항 건설로 많은 국내 공항이 적자 상태임에도 여전히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를 한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속열차인 테제베(TGV)로 2시간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국내 지역은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에 1안과 2안은 오히려 '탄소중심'을 실천할 모양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대 경제대국 중에서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학자이며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인간이 그 무엇보다 두개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지구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이다. 바다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떠오른다.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 지구의 법인가 자본의 법인가. 지금은 집중호우로 통제되는 현화로가 언젠가는 우리의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예술사회학자

<여자를 위해 대신 생각해줄 필요는 없다>(2020) <타락한 저항>(2019) 등의 저자. 사회의 구석구석을 비평합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정확한 비평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따른 홍수위험 대응...소형 강우레이더 7곳 추가 설치

[김은경]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2025년까지 울산 등 7곳에 소형 강우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해 전국 9곳에 관측망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홍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주재 하에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 구축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합동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하천 수해복구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은 반경 40km 도시지역의 강우를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으며, 관측망 구축이 완료되면 각 지역의 홍수예보 정확도가 개선돼 국지적인 돌발홍수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 정보와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망 생산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해 홍수예보 능력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철에 발생한 하천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하천 수해 피해 복구는 78%가량 진행됐으며 나머지 복구 사업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구축 및 정보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끝)

오늘의 날씨

자세한 정보는 weather.mk.co.kr

30(월)

전국 흐리고 남부 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25도, 낮 최고 기온은 26~30도.



세계날씨

지역	30(월)	31(화)
뉴욕	구름 조금 22~25	소나기 24~27
LA	맑음 17~22	맑음 17~21
베이징	맑음 16~26	구름 조금 17~25
도쿄	소나기 25~28	흐리고 비 25~30
홍콩	소나기 27~32	소나기 27~32
방콕	흐리고 비 26~30	흐리고 비 26~29
모스크바	구름 조금 14~23	구름 조금 15~24
런던	맑음 11~17	구름 조금 13~17
파리	구름 조금 13~18	구름 조금 14~20
로마	맑음 13~27	맑음 13~27
카이로	맑음 26~38	맑음 25~36
시드니	맑음 5~18	맑음 8~17
상파울루	소나기 16~19	구름 조금 16~20
싱가포르	구름 많음 26~30	구름 많음 26~29
토론토	소나기 18~30	소나기 18~28

지역별 주간 날씨

지역	31(화)	1(수)	2(목)	3(금)	4(토)	5(일)
서울·경기	☹️ 22/25	☹️ 21/25	☹️ 21/26	☹️ 20/28	☹️ 20/29	☹️ 20/29
영동	☹️ 21/25	☹️ 20/23	☹️ 21/23	☹️ 19/25	☹️ 19/25	☹️ 19/25
충청	☹️ 22/26	☹️ 22/26	☹️ 23/27	☹️ 21/28	☹️ 19/29	☹️ 20/29
호남	☹️ 22/28	☹️ 23/27	☹️ 23/28	☹️ 20/29	☹️ 19/30	☹️ 19/29
영남	☹️ 19/24	☹️ 20/24	☹️ 20/25	☹️ 19/26	☹️ 17/27	☹️ 17/27
제주	☹️ 24/30	☹️ 25/31	☹️ 25/30	☹️ 24/28	☹️ 23/28	☹️ 24/27

오늘의 간조·만조

지역	간 조	만 조
부산	06:15/18:45	12:52/--:--
인천	03:08/15:19	08:59/21:45
울산	05:13/18:05	11:37/--:--
목포	11:57/--:--	06:39/19:34

지역	풍향	풍속	파도
서해중	북~북동	3~7%	0.5~0.5m
남해서	남서~서	5~8%	0.5~0.5m
동해남	서~북서	4~8%	0.5~1.0m

서울신문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우정사업본부 이승원△정보통신산업정책관 류제명 ◇과장급 전보△연구산업진흥과장 이진환
-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 황승희
-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조봉업 ◇국장급 전보△의정관 김민재 ◇과장급 전보△교부세과장 김경태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중견기업정책관 안세진 ◇과장급 전보△산업기술정책과장 이종석△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정권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장 박성동△인천지방해양수산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026면 사람들

청 운영지원과장 정재관△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정재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이재용△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영택
-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신규△유도무기사업부장 유명종

서울신문

부 고

- 김종실씨 별세 강석필(전 고려아연 전무)·석진(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석민(중화고 교사)씨 모친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2)3410-3151
- 권중호(전 서울신문 광고국 부장)씨 별세 이춘자씨 남편상 권태형(경향신문 광고국 2팀장)·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026면 사람들

태훈(큰산인디컴 부장)씨 부친상 2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227-7597

- 문시자씨 별세 허대범(예비역 해군 소장·제15대 국회의원)씨 부인상 허윤정·윤주·여정씨 모친상 이은관(다사랑산부인과 원장)·이한옥(미국사우스베일로대 한의대 교수)씨 장모상 28일 진해세광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55)545-4447
- 최순자씨 별세 이경주(아시아경제 감사·전 웰컴 상무)·경연·승환(서울 화이트플러스 치과 의사)씨 모친상 강종원(나노미래생활 대표)씨 장모상 강윤주씨 시모상 29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31)787-1506
- 김주훈(전 국기원 이사장·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전 조선대학교 총장)씨 별세 27일 조선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62)220-3352